

‘삼성 플립6에 도전장’… 가성비 앞세운 글로벌 폰 쏟아진다

애플·중 등 경쟁력 내세워 시장 선점
2026년 ‘아이폰 폴더블’ 출시 전망
모토로라, 99만원 ‘레이저 50 울트라’
샤오미, 얇은 폰 ‘믹스 플드4’ 선포

삼성전자가 선점한 인공지능(AI) 폴더블폰 시장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AI 폴더블 폰인 갤럭시Z6를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지만 주요 경쟁사였던 애플에 이어 중국 스마트 업체들은 물론 모토로라까지 합세한 것.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폴더블폰 가격은 Z6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가성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AI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시장조사 전문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66.4%였다. 세계 최초로 AI폰 시장을 연 삼성은 갤럭시S24의 흥행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연속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랐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6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Z폴드6·플립6’를 출시하며 AI 폴더블 폰 시장을 장악하고 나섰다. 처음 공개한 AI폴더블인만큼 AP를 변경해 AI기술력도 향상 시켰다. 갤럭시 S24 울트라에 탑재한 AP와 동일한



모토로라 ‘레이저 50 울트라’.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3세대’를 사용하며, 원활한 AI 기능을 지원한다.

이에 Z폴드6에 대한 판매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 갤럭시Z6 시리즈의 국내 사전 판매는 91만대였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매출이 올해 2028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해 전 세계 점유율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삼성이 AI 폴더블 폰을 공개한 직후 애플은 물론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 모토로라까지 가격 경쟁력을 내걸고 시장 경쟁에 참여했다.

먼저 애플은 이르면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애플이 이르면 2026년 폴더블 형태의 아이폰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애플이 내부 코드명 ‘V68’로 불리는 폴더블 아이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경쟁사인 애플의 AI 폴더블폰 진출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반면, 삼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 모토로라까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걸고 시장 선점에 나선다.

먼저 모토로라는 AI를 탑재한 폴더블폰을 플립6의 절반 수준의 가격에 출시할 전망이다.

업체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다음달 중 AI 폴더블 폰인 레이저 50 울트라



플립형 폴더블 아이폰 상상도.

국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늦어도 8월 초까지 출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유통 채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내 이동통신사와 이커머스를 통한 자급제 기기 판매 등이 모두 이뤄질 전망이다.

레이저 50 울트라 국내 출고가는 99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작인 레이저 40 울트라 출고가인 129만9000원과 비교하면 약 24% 저렴해졌다. 미국 시장 출고가인 999달러(약 138만원)와 비교하면 국내 판매가는 더욱 낮은 수준이다.

특히 레이저 50 울트라 가격은 삼성전자의 플립6 출고가인 148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가격은 약 3분의 2 수준이다. 여기에 레이저 50 울트라는 이 같은 저렴한 가격에 더해 AI까지 탑재

하고 있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본격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와 화웨이가 연이어 AI폴더블 폰을 출시하고 있다.

샤오미는 차세대 폴더블폰 신작 ‘믹스 플드4’를 선보였다. 믹스 플드4 두께는 Z폴드6보다 얇다. 믹스 플드4도 갤럭시Z 폴드6와 마찬가지로 AI 기능을 탑재했다. AI 이미지 인식으로 사진을 해석·편집할 수 있고 AI 요약 기능을 활용해 문서를 손쉽게 요약한다. 영상 제작이 가능한 AI 편집 기능도 갖췄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6 판매가 정식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더 저렴한 제품을 내놔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스펙에 따르면 노바 플립은 6.88mm의 얇은 두께에 화웨이의 자체 하모니OS 및 치린 5G 칩, AI, 그리고 5000만 화소의 후면카메라를 갖췄다. 상세한 사양과 가격은 내달 5일 저녁 정식으로 공개된다. 노바 시리즈가 중저가형 라인인 만큼 포켓 시리즈 보다 저렴한 가격의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이 될 전망이다.

박진석 카운터포인트 애널리스트는 “최근 AI 기술 트렌드가 주변기기 혹은 같은 브랜드 내 연계성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이는 데 따라 삼성 역시 기존 AI 기능에 더해 연관 기기와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의대생, 5중 3명 ‘수도권 의사’… 울산·강원 절반이상 지역 떠나

전체 의대생 47% 서울 병원에 취업
비수도권 의대생 60~80% 지역 이탈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의대생 5중 3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취업한 의대생은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생들의 ‘졸업 후 탈지역’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 지역 의대는 졸업생 중 3%만이 해당 지역 의사로 남기도 했다.

정부가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증원했지만, 그 지역에 정주하도록 추가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진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2년까지 의대 졸업생 9807명 중 58.4%에 해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관련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뉴스시스

당하는 5730명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중 서울 지역 취업자는 4550명(46.4%)이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은 2488명인 점에 비춰 보면, 다른 지역 의대 출신 상당수가 서울 소재 병원에 취업한 셈이다.

학교 소재지별로 ▲서울 2678명(90.2%) ▲인천 74명(91.4%) ▲경기 223명(93.3%)이 수도권으로 취업했다.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 울산 지역 의대생의 80.5%(149명)가 지역을 이탈해 수도권으로 취업하며 지역 이탈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665명

(65.6%) ▲충남 370명(60.1%) ▲전북 311명(44.6%) 이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은 2018년 55%에서 2022년 60.7%로 증가했다.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1개 지역에서 높았으며, 줄어든 지역은 부산, 대전, 충북 단 3곳에 불과했다.

의대 졸업생 가운데 자신이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지역에 취업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북은 17명(3.3%), 울산 16명(8.6%)에 불과했다. 경남, 강원, 충남지역도 각각 77명(19.6%), 214명(21.1%), 194명(31.5%)으로 낮았다.

이런 현상은 지역 의대가 지방의대로 인가받고 교육병원 소재지가 수도권

에 위치해 학사 운영이 수도권에서 이뤄진 것이 원인 중 하나다. 예컨대, 울산대의대의 교육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실제 지난 5년간 졸업생 185명 중 144명(77.8%)이 서울로 취업했다. 울산 지역 병원에 취업한 졸업생은 16명에 그쳤다.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의료 인력을 배치·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전국 미분양 주택 7만4000호… 7개월 연속 증가

악성 미분양 1만4856호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에도 쌓이면서 7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4037호로 전월 대비 2.6%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다. 작년 12월 말 6만호를 웃돌았으며, 올해 들어 4월에는 7만호대로 늘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856호로 전월 대비 1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5051호로 전월 대비 2.0%, 지방이 5만8986호로 전월 대비 2.8%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기준 인허가는 14만986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1%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3만1528호, 비(非)아파트 1만8332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5%, 35.8% 줄었다.

누적 기준으로 착공은 12만7249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11만2495호로 전년 동기 69.3% 증가했고, 준공도 21만9560호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으로 전월 대비 2.9% 감소한 총 5만 5760건으로 집계됐다. 연초 이후 누적으로는 31만7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이 19.1%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총 19만 2738건으로 전월 대비 15.4%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